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오늘, 2026 년 6 월 29 일 09:00(현지 시간),
브라질 카시아스 두 술 베타니아 공동체에서
유레마 클라리, 마리아 테레지냐 멜레티 수녀님이
(JUREMA CLARY, Sr. M. TEREZINHA MELETTI)

90 세 (수도자 생활 67 년)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는 빛나게 될 것이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하느님께서 항상 선한 목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던 테레지냐 수녀를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수녀님의 ‘빠스또렐라’로서의 삶은 빛나게 되었고, 사목 활동은 사랑 안에서 겸손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테레지냐 수녀는 1935 년 10 월 12 일 브라질 리우그란데두술주 카시아스두술에서 태어나, 1935 년 11 월 7 일 카시아스두술의 산타 테레사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54 년 1 월 6 일 카시아스 두 술 - 테르세이라 레구아에서 수녀회에 입회했으며, 수련 초기에는 벤토 곤살베스(RS)에서 본당 사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1957 년 2 월 1 일 카시아스 두 술 - 산 레오폴도에서 수련원에 들어갔으며, 1958 년 7 월 31 일 같은 카시아스 두 술 - 산 레오폴도에서 첫 서원을 발했습니다. 테레지냐 수녀는 1963 년 6 월 16 일, 우리 창립자가 브라질을 방문하는 동안 종신 서원을 발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테레지냐 수녀는 초기 양성기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으로 묘사되며, 온순하고 솔직하고, 단순하고 깊이 있고, 성실하고 관대하며, 수도회에 대한 큰 사랑과 사목 카리스마를 충실히 실천하는 데 지속적으로 헌신하여 받은 은사가 결실을 맺도록 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수녀님은 겸손하고 질서 정연하였으며, 편안하고 다정했습니다.

첫 서원을 한 후 카시아스 두 술 - 산 레오폴도에 머물며 '지원자들의 보조자'로서 젊은 이들에게 신뢰와 기쁨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수녀님은 필요할 때 최선을 다한 충실한 협력자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녀는 카리타스(Caritas)에서의 사도직, 특히 '세뇨르 예수 테라피 공동체(Comunidade Terapêutica Senhor Jesus - PATNA)'에서의 사도직을 중점적으로 삼으며 사목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공동체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와,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이 회복의 길을 걷도록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돕는 사명에 평생을 바친 우리의 소중한 테레지나 수녀님을 기리며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의 존재는 희망의 표징이었으며, 그분의 믿음은 무수한 생명을 굳건히 지탱해 주었고, 그분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자기 희생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은 모든 이 안에서 그분의 증언은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세뇨르 예수 치료 공동체(Comunidade Terapêutica Senhor Jesus - PATNA)'의 회복 중인 모든 형제자매들을 대표하여, 테레지나 수녀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모든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신앙과 사랑, 봉사로 남기신 그분의 유산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사목 활동 기간 동안, 그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목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67 년 포르투알레그레 - 무리아우도; 1970 년 포르투알레그레 - 메디아네이라; 1973 년 포르투알레그레 - 무리아우도; 1977 년 벤토 곤살베스/RS; 1987 년 카시아스 두 술 - 산 레오폴도; 1997 년 카시아스 두 술 - 테르세이라 레구아; 2004 년 벤토 곤살베스/RS; 2017 년 카시아스 두 술 - "베타니아" 공동체; 2022 년 카시아스 두 술 - 테르세이라 레구아, 그리고 2026 년 4 월부터는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해 "베타니아" 공동체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병환 기간 동안 우리 수녀님을 사랑으로 돌봐 주신 수녀님들과 외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녀님들은 선한 목자께서 테레지나 수녀의 삶에 형성한 일과, 그녀가 선하고 신실한 빠스또렐라로서 자기 희생을 통해 뿌린 선한 일을 증언합니다:

테레지나 수녀는 수도회의 열정적인 영혼이었으며, 알베리오네 신부께 직접 종신 서원을 한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항상 회상했으며, 그 기억을 큰 사랑과 감사함으로 간직했습니다. 양성장으로서 그녀는 단순하지만 깊은 방식으로 알베리오네에 대한 지식을 소개하며, 그녀가 잘 흡수한 카리스마를 충실히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선교 생활은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 특히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특별하고 지칠 줄 모르는 배려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수녀님은 항상 그들과 그들을 돌보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히 수녀님은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바치는 코론치나 세번째를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나는 길 잃은 양이다: 내가 나를 잃지 않게 하소서'라는 구절을 말하며 그들에게 성모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기도는 수녀님의 하루 중 중요한 중심이었습니다. 수녀님은 오랜 시간을 기도에 바쳤고, 일기에 적어 놓은 사람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수녀님을 찾는 이들의 영적 필요에 세심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모든 연락처에 신앙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현대적인 수단으로 복음을 섬기는 방법도 유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테레지나 수녀님, 빠스또렐라로서 수녀님의 성소의 선물에 충실하게 증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녀님을 아버지의 자비에 맡겨드리며, 평화와 사람들 사이의 연대의 선물을 위해 중재해 주시길 청합니다.

총 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2026 년 6 월 29 일, 로마

사도 성베드로와 바오로 대축일